

【논문】

칸트 『유작』(Opus postumum)*의 시발점(Ansatzpunkt)

— 합본(Konvolut) IV의 23개 ‘초기 낱장문서’
(Die ältesten Lose Blätter) 문제를 중심으로 —

김재호

【주제분류】 서양근대철학, 자연철학, 형이상학, 인식론

【주요어】 칸트, 칸트의 유작, 유작의 시발점, 합본 IV, 초기 낱장문서, 판단력비판,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요약문】 『판단력비판』의 출간으로 한때 비판적 과업의 완성을 믿었던 칸트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자신의 철학적 체계를 다시 세우는 마지막 저서를 준비하게 된 것일까? 다시 말해, 『유작』에서의 칸트의 문제의식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생겨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그의 어떤 이전 작품의 문제들과 연관된 것일까? 칸트 『유작』의 시발점 문제는 바로 이 질문들에 관한 논의이다. 그런데 이 시발점 문제는 이미 현존하는 『유작』 편집의 역사 속에 이미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 예는 『유작』의 가장 오래된 문서들로 알려진 합본 IV의 23개 낱장문서들의 편집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23개 낱장문서 중 5개만을 『유작』에 포함시킨 아디케스 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유작』에서 칸트의 문제의식의 출발점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유작』의 시발점을 『판단력비판』에서 찾았던 레만(Lehmann)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유작』 해석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후 *Op*로 줄여서 표기함.

I. 시작하는 말: *Op*의 ‘시발점 논쟁’(Ansatzpunkt-Debatte)¹⁾

1790년 『판단력비판』(Kritik der Urteilkraft)²⁾의 출간은 적어도 당시의 칸트에게는 자신의 ‘비판철학적 전체 과업’(ganzes kritisches Geschäft)의 완성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³⁾ 따라서 *KU* 서문(Vorrede)에 드러난 칸트의 판단에 따르면, 이로써 ‘자연 형이상학’(Metaphysik der Natur)과 ‘윤리 형이상학’(Metaphysik der Sitten)으로 이루어진 형이상학 전체체계의 완성이라는 ‘이론[체계]적 작업’(doktrinales Geschäft)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었다.⁴⁾

그러나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한 외적 증거에 따르면 90년대 중반부터- 칸트의 이러한 생각에는 분명한 변화가 감지된다. 칸트가 자신의 몇몇 지인들과 나는 편지글들 속에는, 지금까지 정립한 비판철학의 체계의 결정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새로운 -결국 출간되지 못한 마지막 저서이기도 했던- 저서를 준비하고 있었던 칸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칸

1) 사실 *Op*의 연구사에서 ‘시발점 논쟁’(Ansatzpunkt Debatte)이라는 이름의 논쟁사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그 어떤 연구자들도 이러한 이름 하에서 본격적인 논쟁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된 연구자들 간의 다양한 견해들 역시 논쟁이라 불릴 정도로 연속적인 상호 논박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p*에서 칸트의 문제의식이 그의 이전 철학적 작업과 관련하여 볼 때 어떤 작품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는 *Op* 연구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고, 실제로 이에 관한 입장 차이에 따라 *Op*의 해석에 많은 차이를 보여 왔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Op*의 문제의식의 출발점에 관한 이러한 논의일반을 ‘시발점 논쟁’이라 부르고자 한다.

2) 이후 *KU*로 줄여서 표기함.

3) *KU*: “그러므로 이로써 나는 나의 전체 비판적 작업을 끝마친다.”(AA V 170)

4) *KU*: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론[체계]적 작업으로 나아갈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철학을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으로 구분하는 것에 따르고, 그와 같이 순수 철학도 구분함에 따라서, 자연 형이상학과 윤리 형이상학이 저 [이론 체계적] 과업을 이루게 될 것이 분명하다.”(같은 곳)

트에게 보낸 키제베타(Kiesewetter)의 1795년 6월 8일자 편지는 칸트의 마지막 작품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보여주는 최초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으며,⁵⁾ 가르베(Chr. Garve)에게 보낸 1798년 9월 21일자 칸트의 편지는 자신의 마지막 철학적 과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 뿐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이러한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던 당시의 고통스런 상황을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⁶⁾

이처럼 칸트가 말년에 자신의 철학 체계의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작품을 구상하였으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큰 열정을 보였는지는 칸트의 중요 전기들 역시 동일한 보고를 해주고 있다.⁷⁾ 그러나 칸트의 이 오랜 계획은 그가 생애 마지

5) Kiesewetter의 이 편지가 칸트의 마지막 작품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는 최초의 기록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이 속에서 칸트가 자신의 마지막 작품의 제목으로 언급한 몇 가지 중 하나인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로부터 물리학으로의 이행’(Übergang von metaphysischen Anfangsgründen der Naturwissenschaft zur Physik)이라는 명백한 표현을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당신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몇 장의 인쇄전지들(Bogen)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인쇄전지들은 당신의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로부터 물리학으로의 이행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들이 나오기를 나는 몹시 갈망하고 있습니다.”(AA XII 23).

6) AA XII 257: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과제는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로부터 물리학으로의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이 과제는 해결되어질 것이다. 만약 해결되지 못한다면 비판철학의 체계에 하나의 빈틈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성의 요구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한 능력에 대한 의식도 마찬가지로 쇠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충족시키는 일은 미루어졌는데, 이는 비록 삶의 활력의 완전한 침체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극도의 초조함으로까지 점점 나타나는 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이다. 그러니까 나의 건강상태는,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알려준 바처럼 연구자의 건강상태는 아니다. 오히려 간신히 살아가는 자(음식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의 상태이다.”

7) Adickes, *Kants Opus postumum* 1920 3쪽 참조; 특별히 칸트의 말년의 삶을 생생히 전해주고 있는 Wasianski는 칸트가 이 마지막 작품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여겼으며, 칸트의 이러한 인식이 그로 하여금 급격한 건강악화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칸트가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쏟은 노력이 그의 남은 힘을 더 빨리 소진시켰다. 그는 이 작품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러한 판단이 그의 쇠약해짐에 커다란 몫을 했을 것이다.”(Wasianski, *Immanuel Kant in seinem letzten Lebensjahren*, Darmstadt 1993 260쪽).

막까지 보여준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완성으로 남게 되고, 이 마지막 작품과 관련된 칸트의 미완성 원고만이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Op*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남겨진 미완성 원고들의 상이한 편집 판본들에게 공통적으로 붙이는 명칭일 뿐이다.⁸⁾

그렇다면 한때 비판적 과업의 완성을 믿었던 칸트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자신의 철학적 체계를 다시 세우는 마지막 저서를 준비하게 된 것일까? 다시 묻자면, 칸트의 마지막 작품을 위한 예비 작업들에서의 칸트의 문제의식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생겨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그의 어떤 이전 작품의 문제들과 연관된 것일까? *Op*의 ‘시발점’(Ansatzpunkt)문제란 바로 이 질문들에 관한 논의에 다름 아니다. *Op*의 외연(外延)을 결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칸트의 마지막 작품에 속하는 예비 작업들의 원고에 어떤 것들이 속하며, 또 어떤 것들이 속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이 시발점 문제는 *Op*의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격적인 *Op* 연구에 앞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8) 칸트의 마지막 작품을 위한 미완성 원고들의 최초의 편집은 Reicke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는 Arnoldt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1882년부터 1884년까지 Altpreußische Monatsschrift에 총 9개의 합본(Konvolut)을 차례로 연재하게 된다. 사정상 연재를 중단함으로써 칸트 원고의 일부 편집에 그친 Reicke의 편집본과는 달리 하나의 완결된 책으로 칸트의 마지막 원고를 출판하려고 했던 함부르크의 목사이자 아마추어 철학자였던 Krause는 1888년과 1902년 두 번에 걸쳐 각각 『임마누엘 칸트의 유작』(Das nachgelassene Werk J[II]. Kants), 『칸트의 마지막 사상』(Die letzten Gedanken J[II]. Kants)을 출판하였다. 그러나 이들 편집본들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엄격한 학문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편집본은 1920년에 Adickes에 의해 비로소 완성된다. 그의 연구로 인해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순서가 뒤엎겨져 전해오던 칸트의 원고들이 연대기적으로 분류됨으로써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Buchenau와 Lehmann에 의해 베를린 학술원관 칸트 전집 XXI권(1936년), XXII권(1938년)으로 *Op*는 편집되었다. 이들 편집본들의 편집 역사와 각 편집본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칸트 『유작』(Opus postumum)에 대한 이해와 오해 -칸트의 마지막 작품을 위한 예비 작업들의 편집 역사를 중심으로-”(김재호 2006, 철학연구 75집)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Op*의 시발점 문제와 관련된 논의의 결과는 일차적으로는 이미 현존하는 *Op* 편집의 역사 속에 이미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Op*의 최초의 문서와 관련된 합본(Konvolut) IV의 초기 낱장문서들의 편집문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Op* 연구의 가장 중요한 판본 중 하나인 1920년 아디케스(Adickes)의 연구에 나타난 초기 낱장문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Op*의 최초의 문서를 결정하는 것이 *Op*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밝혀질 것이다. *Op*의 시발점 문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논쟁거리는 *Op*와 제3 비판서인 *KU*와의 관계이다. 이에 III장에서는 학술원판의 편집을 주도하면서 *Op*의 시발점을 *KU*에서 찾았던 레만(Lehmann)의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Op*의 시발점 문제가 *Op* 해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Op* 연구의 바람직한 한 방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II. 합본(Konvolut) IV의 ‘초기 낱장문서들’(Die ältesten Losen Blätter)

1. 최초의 문서

우리에게 알려진 *Op* 편집과정의 역사는 *Op*의 외연(外延)을 결정하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잘 보여준다. 예컨대 칸트 텍스트 편집에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학술원 편집에 의해 *Op*라는 제목으로 모여 있는 칸트의 미완성 원고들은 칸트가 제공하였던 시간 순서에 따라 편집된 것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에 포함된 원고들 중에는 *Op*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칸트의 다른 작품과 연관된 것들도 있었으며, 마지막 작품과 관련된 원고로 여겨지는 것들이 여기에서는 빠져 있기도 하였다.⁹⁾ 이러한 정황은 특별히

*Op*에 속하는 최초의 문서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라는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쉽지 않은 이유는 칸트 후기작품에 대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무엇을 최초의 문서로 볼 것인가에 의해 마지막 작품에서 다루려고 했던 주제들에 대한 칸트의 문제의식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Op*의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Op*라고 부르는 칸트의 마지막 작품을 위한 미완성 원고들은, ‘낱장문서들’(Lose Blätter), ‘8절지 초안’(Oktaventwurf), ‘2절지 형태의 13개의 초안들’(dreizehn Entwürfe auf Foliobogen)을 포함하고 있다. 칸트는 이들 원고들 각각에 두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희랍어나 라틴어 알파벳과 숫자로 분류번호(Signatur)를 기입하였다. 그리고 이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문서들은 13개의 인쇄용지 겉표지 속에 넣어져 보관되어 13개의 ‘합본’(Konvolut)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¹⁰⁾ 이 인쇄용지 겉표지에는 칸트가 아닌 제3의 인물에 의해, ‘첫 번째 합본’(1stes Konvolut)과 같이 각각 순서대로 표지가 되어있었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합본 I’, ‘합본 II’ 등으로 부르는 원고의 한 명칭이다. 여기서 최초의 문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합본(Konvolut) IV에 포함되어 있는 23개의 ‘낱장문서들’(Lose Blätter)이다.¹¹⁾ 아디케스(Adickes)의 시기구분에 의하면,¹²⁾ 바로 이들 23개

9)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재호 2006, 340-345쪽을 참조할 것.

10) 물론 이 13개의 합본에 속하는 원고들이 칸트가 원래 분류한 형태로 전해지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이 이들 원고를 이 합본 겉표지에서 빼어 조사를 하고 그 자리에 넣지 않았고 어떤 합본은 땅에 떨어져 헝클어진 채 정리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의 독자들은 이들 원고들이 어떤 합본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들 합본들은 어떤 순서로 기록되었는지를 알 길이 없었다.(Tuschling, *Metaphysische und Transzendente Dynamik in Kants Opus Postumum* 1971, 5쪽 참조).

11) 여기서 말하는 23개의 문서들은 합본(Konvolut) IV의 낱장문서들(Lose Blätter) 25, 26/32, 43/47, 42, 31, 37, 38, 41, 33, 35, 29, 28, 27, 44, 30, 45, 23, 39/40, 36, 22, 24, 46, 6이다.

12) 칸트 미완성 원고들의 연대기적 순서에 관해서는 Adickes의 1920년 연구 결과가 오늘날까지 가장 신뢰할 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dickes의

의 ‘낱장문서들’이 *Op*의 원고들 중에서 가장 초기에 해당하는 1786년부터 1796년까지 작성된 것들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문서를 학술원 판은 비록 시기적 구분에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XXI권에(415-477쪽까지) 모두 수록하고 있는 반면, 이들 문서들의 생성시기를 가장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아디케스는 자신의 『칸트의 유작』(Kants Opus postumum)에서 이들 중 1786-1795년까지의 18개의 ‘낱장문서들’을 제외한 1795/96년에 작성된 5개만을 칸트의 마지막 작품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이들 23개의 문서들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이후에 작성된 5개의 낱장문서 36, 22, 24, 46, 6은 칸트의 마지막 작품을 위한 예비 작업에 속하지만, 반면에 낱장문서 25, 26/32, 43/47, 42, 31, 37, 38, 41, 33, 35, 29, 28, 27, 44, 30, 45, 23, 39/40은 이 마지막 작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¹³⁾ 아디케스의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Op*에 속하는 최초의 문서는 합본 IV에 함께 전해지는 1786년에 작성된 가장 오래된 ‘낱장문서’(Loses Blatt) 25, 혹은 아무리 늦어도 1795년에 작성된 ‘낱장문서’ 26/32가 아닌, 그 보다 이후에 작성된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1795년 혹은 1796년에 작성된 ‘낱장문서’ 36이 된다.

이처럼 아디케스가 나머지 18개의 낱장문서들을 칸트의 마지막 작품을 위한 예비 작업에서 제외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 문서들에서는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로부터 물리학으로의 이행’(Übergang von den metaphysischen Anfangsgründen der Naturwissenschaft zur Physik)이라는 칸트가 마지막 작품으로 계획한 저술의 제목이 아직까지는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디케스의 이러한 주장은 이후의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반박을 받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를 투실링(B.

연구가 전혀 순서를 알 수 없이 전해졌던 칸트의 원고들에 연대기적 순서를 제공함으로써 *Op* 연구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음에는 이의가 없으나 그의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제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관해서는 김재호 2006, 335쪽의 각주 67을 참고할 것.

13) Adickes 1920, 37쪽: “1786년-1795년에 생성된 합본 IV의 18개 낱장문서들은 *Op*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같은 책 38쪽 각주1; 42쪽; 49쪽 이하 참조).

Tuschling)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아디케스식의 초기문서 분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아디케스 자신이 『칸트의 유작』(Kants Opus postumum) 여러 곳에서 이들 제외된 문서들 역시 *Op*와 중요한 점에서 내용상 일치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⁴⁾ 예컨대, “『유작』의 응집이론은, 낱장문서 26/32, 43/47, 31, 38, 28에서 준비되었고, 1795년에는 이미 완전하게 형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이 [마지막] 작품에 대한 계획은 아직 시작되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다.”¹⁵⁾, 라고 말한 구절은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로부터 물리학으로의 이행’이라는 제목의 등장 여부로 초기문서를 분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칸트 스스로 마지막 작품을 위한 예비 작업의 과정에서 이 작품의 제목을 여러 번 바꾸었기에,¹⁶⁾ 이 한 가지 제목의 등장 여부에 따라 칸트 사유의 반성과정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 작품의 제목은 칸트의 사유의 반성과정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이지 그 반대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낱장문서들의 순서에서 칸트는 명백하게 외적인 단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제목 하에서 등장하는 시기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문서에서 토론하고 있는 테마가 시기적으로 그 보다 앞선 문서에서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디케스의 분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문서들이 합

14) Tuschling 1971, 15쪽.(예컨대 Adickes 1920, 38쪽 각주2; 40, 46쪽).

15) Adickes, 1920, 47-48쪽.; Adickes는 그의 1925년 연구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보여준다. Adickes, *Kant als Naturforscher* Bd. II 1925, 132, 135쪽 참조.

16) 칸트가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알리는 편지글이나 남겨진 원고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지막 작품의 제목은 공통적으로 ‘이행’(Übergang)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약간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작품의 확장된 판 속에서는 “Der höchste Standpunct der Transcendental Philosophie in System der Ideen”(AA XXI 54)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IV에 나머지 문서들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우연적인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칸트 스스로 이들 문서들이 자신의 마지막 작품에 속한다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이들 문서들을 함께 보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¹⁷⁾

최초의 문서에 대한 아디케스의 설명에 대한 이상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다면, 아디케스식의 초기문서 분류보다는 합본 IV에 포함된 23개의 낱장문서들을 모두 칸트의 마지막 작품을 위한 예비 작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¹⁸⁾ 따라서 아디케스의 분류방식과 달리 합본 IV에 함께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문서인 ‘낱장문서 25’를 *Op*의 최초의 문서로 간주한다면 이제 우리는 *Op*의 시발점(Ansatzpunkt)에 대해 새로운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낱장문서 25’(Loses Blatt 25)와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¹⁹⁾

‘낱장문서 25’(AA XXI 415-416)는 칸트의 마지막 작품을 위한 예비 작업들의 미완성 원고들 중에서 그 작성 연대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1786년에 작성된 것이다. 이 원고는 칸트가 자신의 저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한 서평의 일부를 직접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다. 1786년 12월 2일자 ‘괴팅엔 학술보’에 익명으로 실린 이 서평²⁰⁾

17) Tuschling 1971, 15-16쪽 참조.

18) 칸트의 마지막 작품을 위한 예비 작업들에 대한 최초의 영어권 번역서에 해당하는 캠브리지 판(Cambridge Edition)의 *Opus postumum*에서도 최초의 문서를 낱장문서 25로 보고 이를 가장 첫 장에 배치하고 있다. (Kant, *Opus postumum*, trans. by Förster and Michael Rosen; ed. by E. Förster, Cambridge 1993, 3쪽 참조).

19)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Naturwissenschaft*(1786년). 이후 *MAN*으로 줄여서 표기함.

20) 이 서평이 실린 곳은 1786년 12월 2일자 Göttingische Anzeigen von gelehrten Sachen, 191 Stücke, 1914-1918쪽이며, 이 익명의 서평자는 Abraham Kästner로 알려져 있다.(Oscar Fambach, *Die Mitarbeiter der Göttingischen Gelehrten Anzeigen 1769-1836*, Universitätsbibliothek Tübingen 1976, 134쪽 참조; Förster 1993, 257쪽에서 재인용).

은, 같은 해에 발표되었던 칸트 *MAN*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MAN*에 대한 이 서평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제기는, ‘동역학’(Dynamik) ‘정리’(Lehrsatz) 1의 증명을 ‘운동학’(Phoronomie)의 정리에 근거해서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칸트가 동역학 명제의 증명에 운동학적 명제를 증명의 근거로 끌어들이므로써, 물질(Materie)이 근원적으로 운동하는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동역학적 명제의 증명에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비판의 일부를 발췌하여 ‘낱장문서 25’의 앞장에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뒷장에서는 여기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물질의 분량’(Quantität der Materie)에 관한 반성을 시도하고 있다. 만약 칸트의 의도대로 낱장문서 25를 *Op*의 최초의 문서로 받아들인다면, 먼저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주목할 수 있다.²¹⁾

첫째, 낱장문서 25는 칸트가 어떤 문제의식에서 *Op*의 작업을 기획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준다. 즉 *Op*에서 칸트의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1790년의 *KU*가 아닌,²²⁾ 1786년의 *MAN*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1786년 당시 칸트가 ‘괴팅엔 비평지’에 실린 서평의 중요 내용을 직접 발췌본을 만들어 기록할 만큼 그 비판의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생각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칸트가 이후에 의도적으로 낱장문서 25를 합본 IV에 포함시켰으므로써 이 원고를 *Op*의 작업을 위한 예비 작업에 속하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였다면 이러한 생각은 충분한 개연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후에 등장

21) 물론 이 낱장문서 25의 구체적 내용과, 칸트 자신이 *MAN*에 대한 자기비판을 시도한 *Op*의 이후 문서들과의 내용적 연관성에 관해서는 또 다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Tuschling 1971, 28-65쪽 참조.

22) 예를 들어 학술원판 *Op*를 편집한 Lehmann은 *Op*의 문제의식의 출발점을 *KU*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칸트가 물리학적 문제들을 다시 수용하면서 판단력비판으로부터 기인한 이행의 도식과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로부터 기인한 초월철학의 현실화의 요구를 서로 결합하였고 이로부터 이행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학문의 개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AA XXII 752)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 글 III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하는 *Op*의 내용이 단순히 *MAN*의 문제점을 보충하는 것이 아닌, *MAN*의 사상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라는 점이 이러한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다.²³⁾

둘째, 낱장문서 25는 시기적으로 그 이후에 해당하는 초기 낱장문서들과 밀접한 주제적 연관성을 보여줌으로써 칸트가 초기 *Op*에서 어떤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낱장문서 25의 뒷면에서 칸트는 물질의 분량(Quantität), 밀도(Dichtigkeit), 응집[력](Zusammenhang)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 문제는 이후에 등장하는 초기 낱장문서들에서 중심테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초기 *Op*에서 칸트의 관심이 물질에 관한 이론(Theorie der Materie)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낱장문서 25를 최초의 문서로 간주하는 것은 그가 어떤 문제 의식으로부터 *Op*의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해준다. 초기 *Op*에서 칸트의 관심은 분명 물질이론(Materietheorie)에 있었다. 그러나 미리 말해두지만 여기서 그가 다루

23) 물론 이러한 생각에 대해 이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Mathieu는 *Op*가 *MAN*에 대한 ‘자기비판’(Selbst-Kritik)이라는 Tuschling의 견해에 반대하면서, *Op*를 단순히 *MAN*의 문제들에 대한 확장(Erweiterung) 혹은 보충(Ergänzung)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Kants Opus postumum*(1989년)에서 *MAN*의 구절(AA IV 525)과 *Op*의 구절(AA XXI 407f.)을 함께 인용하면서, “이 인용구절은 *MAN*과 ‘새로운 작품’과의 관계에 대한 칸트의 명확한 견해를 포함하고 있다. 즉 새로운 방향으로의 확장Erweiterung이지, *MAN*에서 이루어진 작업에 대한 교정이나 거부는 결코 아니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필자의 판단에는 Mathieu가 근거로 제시한 이들 구절들로부터 *Op*를 *MAN*의 확장으로 간주하는 칸트의 명확한 생각을 찾아낼 수가 없었으며, 이러한 생각을 정당화시키는 Mathieu의 또 다른 근거를 역시 그의 연구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반면에 *Op*가 *MAN*의 자기비판이라는 Tuschling의 논증은 강력하며,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들에 근거하고 있다.(Tuschling 1971, 28-65쪽 참조) *Op*의 문제의식의 연결점을 *KU*가 아닌 *MAN*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또 다른 연구로는 H. Hoppe의 경우를 들 수 있다.(Hoppe *Kants Theorie der Physik. Eine Untersuchung über das Opus postumum von Kant*, 3-5쪽 Main 1969) *Op*와 *MAN*의 관계에 대한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 충실한 토의를 필요로 하며, 그런 점에서 이는 또 다른 연구의 몫이라 하겠다.

는 문제들은 주제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1786년 그가 *MAN*에서 다루었던 물질이론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합본 IV의 초기 낱장문서들에서 발견되는 칸트의 물질이론은 어떤 점에서 *MAN*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3. 물질의 근원적 힘: 에테르(Äther)와 열소자(Wärmestoff)

물질이론과 관련하여 *MAN*과 *Op*의 합본 IV의 초기 낱장문서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에 주목해서 둘을 비교해 보자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핵심 주제의 변화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전 *MAN*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를 칸트가 초기 낱장문서에서 새롭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MAN*에서는 중요 문제로 주목 받지 못하던 주제들이 이곳 낱장문서에서 새롭게 칸트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다.²⁴⁾

초기 낱장문서들에서 칸트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물질의 집합상태(Aggregatzustände)와 관련된 문제들, 즉 기체, 유체, 고체와 같은 물질의 상태와 특히 응고(Erstarrung)와 관련된 문제들, 물체형성(Körperbildung)의 문제, 물질들의 관통[침투](Durchdringung), 분해(Auflösung), 분리(Scheidung)의 문제, 중력과 물질의 무게측정의 문제와 밀도(Dichtigkeit)의 문제, 그리고 이들 문제들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응집력(Kohäsion)의 문제 등이다.²⁵⁾ 물론 *MAN* 역시 이들 문제들을 똑같이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제들이 *MAN*에서는 단지 ‘주석’(Anmerkung)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칸트가 당시에는 이들 주제들을 물질개념을 이루는 핵심적인 주제로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MAN*은 칸트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 형식적 구조에 있어서도 ‘수학적 방법’(die mathematische Methode)을 따르고 있다.²⁶⁾ 즉

24) Förster 1993, xxxviii쪽; Tuschling 1971, 17쪽 참조.

25) 이들 각각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초기 낱장문서들과 그것들의 학술원 출처에 관해서는 Tuschling 1971, 16-17쪽을 참조할 것.

MAN의 네 개의 ‘주요 장’(Hauptstücke)들은 당시 수학적, 자연과학적 논문들의 일반적 분류단위인 ‘설명’(Erklärung), ‘정리’(Lehrsatz), ‘원칙’(Grundsatz), ‘보충’(Zusatz), ‘주석’(Anmerkung)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칸트는 여기서 소위 중심 주제와 그로부터 파생된 주변 문제들을 따로 나누어서 논의하고 있다. 『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Rechtslehre) 서문에 등장하는 다음의 구절은 그 구별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똑 같은 것[책의 분류]에 의해 작성되었다.: 즉 선형적으로 기획된 체계에 속하는 법은 텍스트[본문]에서, 그러나 특수한 경험사례들과 연관된 법들은 부분적으로는 상세한 주해들에서 다루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형이상학인 것이 경험적 법 활동들과 제대로 구별될 수 없기 때문이다.”(AA VI 205f.)

이 인용문을 통해 추론해 보자면, MAN에서도 ‘주석’(Anmerkungen)에 등장하는 문제들은 물질일반에 관한 선형적 이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경험적 현상들에 관한 주제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추론을 정당화시키는 구절을 MAN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칸트는 MAN에서 예컨대 ‘응집력’(Zusammenhang)의 문제를 ‘동역학’(Dynamik)의 다른 본문이 아닌 ‘동역학에 대한 일반적 주해’(Allgemeine Anmerkung zur Dynamik)(AA IV 523ff.)에서 다루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응집력은, [...] 물질일반의 가능성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형적으로는 물질과 결합된 것으로 인식될 수 없다. 이러한 [응집력의] 성질은 따라서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의[동역학의 본문에서의] 고찰에는 속하지 않는다.”(AA IV 518)

결국 *Op*의 초기 낱장문서들에서 칸트가 중심문제로 다시 다루게

26) AA IV 478 참조.

된 주제들은 적어도 1786년 당시의 칸트 시각에서는 선험적 물질이론의 중심주제는 아니었고, 단지 주변문제들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왜 생겨난 것일까? 다시 말해 *MAN*의 물질이론에서는 단지 주변문제에 불과했던 주제들이, 왜 초기 *Op*의 낱장문서들에서는 다시 물질이론의 중심주제로 다루어진 것일까? 그것은 물질의 운동과 변화를 가능케 하는 ‘근원적 힘’에 대한 칸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물질’(Materie)은 엄밀히 말해 그 자체로는 경험적 대상이 아니다. 다만 물질의 다양한 상태만이 우리의 외적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물질의 상태는 운동으로 환원될 수 있다.²⁷⁾ 그리고 이 운동이 포함하는, 혹은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운동하는 힘(운동력)은 물질에 본질적으로 속하는 ‘근원적인 힘’(ursprüngliche Kraft)과, 이 근원적인 힘의 결과로 생겨난 ‘파생된 힘’(abgeleitete Kraft)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1786년 *MAN*에서 칸트는 인력(Anziehungskraft)과 척력(Zurückstoßungskraft)을 물질의 근원적인 힘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초기 낱장문서들에 등장하는 물질이론의 주제들을 다루면서 칸트는 ‘에테르’(Äther), 혹은 ‘열소자’(Wärmestoff)를 물질의 근원적인 힘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낱장문서에서 물질들의 다양한 상태의 원인에 대한 칸트의 설명은 언제나 ‘에테르’ 혹은 ‘열소자’와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낱장문서 43/47’(AA XXI 422ff.)에서 칸트는 물질들의 ‘응집력’(Zusammenhang)을 에테르의 ‘외적인 충격[충돌]’(äußere Stöße), 혹은 ‘진동’(Erschütterung)으로부터 파생된 ‘인력’(Anziehung)으로 설명함으로써, 근원적 힘이 아닌 파생된 힘으로 여기고 있다.²⁸⁾ ‘응고’

27) AA IV 476f: “외적 감각의 대상이어야만 하는 어떤 것의 근본규정은 운동이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오로지 이를 통해서만 이 외적 감각은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성은 물질의 본성에 속하는 모든 나머지 술어들까지도 이 운동의 결과로 돌린다. 그렇기에 자연과학은 철저하게 순수 운동론이거나 아니면 응용 운동론인 것이다.”

28) AA XXI 423: “Zusammenhang muß nicht bloß vom Druk sondern auch den Erschütterungen eines ursprünglich flüßigen Wesens das auch

(Erstarrung)에 대한 칸트의 설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칸트는 유체상태에서 고체적인 응집상태로의 물질의 이행을 의미하는 ‘응고’ 역시도 에테르의 진동과 이 진동을 통해 생겨나는 변화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질들의 상이한 밀도나, 탄성(Elastizität)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에테르나 혹은 열소자의 진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국 *Op*의 초기 낱장문서에서 발견되는 주제들은 칸트가 다시 물질이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합본 IV의 초기 낱장문서들에서는 칸트의 완결된 물질이론의 모습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²⁹⁾ 여기서 구상하고 있는 이론은 적어도 1786년 *MAN*의 물질이론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것은 *Op*에서 칸트의 문제의식이 어디로부터 출발하였는지를 추론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4. ‘낱장문서 29’(Loses Blatt 29)와 ‘낱장문서 39/40’(Loses Blatt 39/40)

앞서 *Op*의 최초의 문서에 관해 다루면서, 합본(Konvolut) IV에 포함되어 있는 23개의 초기 낱장문서들에 관해 논란이 있었음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기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과연 이들 23개의 낱장문서 모두를 칸트의 마지막 작품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것이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아디케스는 이들 낱장문서들 중에서 18개를 제외하고, 1795/96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5개의 문서, 즉 낱장문서 36, 22, 24, 46, 6만을 칸트의 마지막 작품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아디케스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칸트의 마지막 작품의 제목과의 연관성이었다. 즉 합본 IV에 포함되어 함께

ursprünglich elstisch ist abgeleitet werden.”

29) *Op*에서 변화된 새로운 물질이론은 합본 IV에 함께 보관된 ‘8절지초안’(Oktaventwurf)에서 좀 더 명확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전해진 초기 낱장문서들 중에서, 동일하게 자연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Übergang)이라는 학문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문서들을 아디케스는 *Op*에서 제외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아디케스가 자신의 *Op*에서 제외시킨 23개의 낱장문서들 중에는 자연철학적 주제와는 무관한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 문서들의 경우는 자연철학적 주제를 다룬 낱장문서들을 제외시킨 아디케스의 판단이 논란이 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논란의 여지가 적어 보인다. 예를 들어 아디케스에 의해 제외된 낱장문서 26/32의 1면(AA XXI 416)과 3면(AA XXI 419f.)의 내용은 명백히 『실천이성 비판』을 위한 예비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문서들을 칸트의 마지막 작품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한 아디케스의 판단이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서들을 *Op*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칸트가 이들 문서들을 *Op*에 속하는 다른 반성들을 위해 사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³⁰⁾

하지만 아디케스에 의해 *Op*에서 제외된 ‘낱장문서 29’와 ‘낱장문서 39/40’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아디케스가 이들 문서를 자신의 *Op*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이들 문서들이 자연철학적 주제 이외에 형이상학적 혹은 인식론적 설명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³¹⁾ 이런 이유로 아디케스는, 이들 문서들에 대해서 “Opus postumum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³²⁾, 라는 단호한 평가를 내리고, 오히려 이들을 자신이 편집한 학술원판 『형이상학 유고』(Metaphysiknachlaß)(AA XVII 305; 659-665)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아디케스의 판단은³³⁾ *Op*의 외연이 단순히 늘어났는

30) Tuschling 1971, 19쪽 각주2 참조.

31) Adickes의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구절은 특별히 ‘낱장문서 29의 1. Seite’에 ‘형이상학’(Metaphysik)과 ‘관념론’(Idealism)이라는 제목으로 등장하는 두 개의 문단(AA XXI 440-441쪽)과, ‘낱장문서 39/40 3. Seite’에 등장하는 두 번째 문단(AA XXI 458쪽)의 ‘초월철학’(transzendente Philosophie)에 관한 구절이다.

32) Adickes 1920, 48쪽.

33) 물론 이것은 Adickes만의 생각이 아니다. 오늘날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생

나 줄었느냐, 라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 낱장문서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Op*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어도 초기 *Op*의 성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Op*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디케스의 판단은, 칸트가 *Op*의 초기에서는 단지 자연철학적 주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후기 *Op*에 이르러서야 인식론적인 주제와 형이상학적 주제를 다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Op*를 하나의 작품이 아닌 두 개의 서로 다른 작품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종전의 ‘두 작품 이론’(Zwei-Werke-These)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비록 아디케스 자신은 이러한 ‘두 작품 이론’에 분명 반대하였음에 불구하고 말이다.³⁴⁾

각을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Brandt는 Adickes의 이러한 판단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서 이를 *Op*에 포함시킨 학술원판의 편집을 비판하고 있다.(Brandt, ‘Kants Vorarbeiten zum Übergang von der Metaphysik der Natur zur Physik’ 9쪽 참조 In: *Von Übergang-Untersuchungen zum Spätwerk Immanuel Kants*, 1991)

- 34) ‘두 작품 이론’의 최초 주장자는 Vaihinger로 알려져 있다. 그는 1884년에 “Zu Kants Widerlegung des Idealismus”라는 논문에서 오늘날 칸트 유작의 제목이 되어버린 ‘Opus postumum’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하였는데, 이는 칸트 유작이 두 개의 작품을 함께 아우르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명시적으로는 1889년의 논문(In: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IV, 1889, 732ff.: Tuschling 1971, 9쪽에서 재인용)에서 칸트의 남겨진 수고가 두 개의 서로 다른 미완성의 작품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는 이전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로부터의 물리학의 이행’이라는 제목 대신 ‘Opus postumum’이라는 상위의 제목을 정당화하였다. 그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Vorländer도 동일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Krause의 *Op* 편집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Krause의 1902년 편집 판 부제를 참고 할 것) 그러나 이러한 ‘두 작품 이론’은 1920년의 Adickes에 의해 처음으로 반박되었고 후대에 많은 이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Adickes 1920, IX, XVI 쪽; Tuschling 1971, 9쪽; Mathieu, *Kants Opus postumum*, 1989, 250, 252쪽; Brandt, 1991, 4쪽 이하) 그럼에도 이러한 ‘두 작품 이론’은 최근에 Werkmeister에 의해 다시 부활하고 있다.(*Kant: the architectonic and development of his philosophy*, Open Court, La Salle and London 1980, 112, 173쪽; Werkmeister에 대한 출처는 Förster 1993, II쪽 각주 29에서 재인용)(김재호 2006, 329쪽 각주 47 참조).

이런 이유에서 아디케스의 판단과는 달리 이들 낱장문서들 역시 초기 *Op*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³⁵⁾ 그렇다면 ‘낱장문서 29’와 ‘낱장문서 39/40’을 인식론적, 형이상학적 주제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Op*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또한 만약 이들 문서들을 초기 *Op*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해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먼저 두 번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보자. 만약 이들 문서에서 발견되는 형이상학적이고 인식론적인 주제들을 칸트가 초기 *Op*의 작업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Op*의 초기시기의 자연철학적 주제들의 등장, 단순히 칸트의 자연철학적 주제나 물리학적 주제 자체의 관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 주제들에 대한 칸트의 관심은 선형적 인식의 문제에 관한 비판이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³⁶⁾ 이러한 해석은 일차적으로, *Op*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작품, 즉 초기의 자연철학적 주제에 관한 연구와 후기의 인식론적 혹은 형이상학적 주제를 다룬 작품들의 상위 명칭일 뿐이라는 두 작품 이론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낱장문서 29와 39/40의 인식론적 형이상학적 주제들을 초기 *Op*의 작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들 두 개의 구절을 *Op*에서 제외시킨 아디케스의 판단에 대표적으로 강한 반론³⁷⁾을 제기한 투실링(B. Tuschling)의 주장에 따르면, 그 근거는 이들 구절들이 초기 낱장문서들과 갖는 내적 연관성

35) Tuschling 1972, 19-23쪽 참조.

36) 같은 책 19쪽.

37) Adickes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반론을 제기한 경우를 Lehmann에게서 찾을 수 있겠다. 이들 23개의 구절을 다 학술원판의 편집에 포함시킨 Lehmann은 학술원판 *Op*의 서문(Einleitung)에서 Adickes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was natürlich cum grano salis zu verstehen ist: 물론 그것은[18개의 낱장문서가 *Op*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은] 문자 그대로 이해될 수만은 없다”(AA XXII 771), 라고 짧게 언급함으로써 Adickes의 판단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낱장문서 29의 경우를 살펴보자.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형이상학’이라는 제목의 구절에서 칸트는 먼저 ‘세계’(Welt)를 ‘사물들 그 자체의 총체’(ein Inbegriff der Dinge an sich selbst)로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세계에서 인식하고 있는 사물들의 성질들로부터, 그리고 세계 속에 있는 사물들이 갖는 응집력(Zusammenhang)의 법칙들에 따르는 [사물들의 성질들로부터], 다른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법칙들에 따라 움직이는 어떤 것을 추론할 수 있는가?”(AA XXI 440)

또한 ‘관념론’(Idealism)이라는 제목의 이어지는 문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관념론: 꿈속에서는 우리에게 현상할[나타날] 수 있는 객체들[대상들]이 현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것들은 표상들이지만, 현상들이 아닌 상상의 산물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론에서, 우리에게 물체로서 현상하는[나타나는] 것은 실재하고, 그리고 우리 표상들의 원인이다. 단지 이들 표상들은 한갓 현상들이지만, 그러나 꿈에서는 한갓 가상이라는 것이다. [...] 자유로운 인력과 척력은 실체(Substanz)의 분량의 비례관계에서, 즉 점착력(Moment der Tenazität)의 비례 속에서 부피와 곱해진다. [...]”(AA XXI 440-441)

이상의 인용문에서 칸트는 분명 합본 IV의 나머지 초기 낱장문서들에서 주된 문제로 다루고 있는 물체의 형성과 관련된 응집력(Zusammenhang)의 문제와 관념론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따라서 투실링의 주장에 따르면, 칸트가 초기 낱장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의 전체 체계’(das ganze System von jeder Materie)(AA XXI 425)에 관한 이론을 다루는 가운데 관념론의 질문에 부딪치게 되었다고 생각해야지, 칸트가 순전히 인식론적인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 중에 이들 문제가 포함되었고, 따라서 이들은 *Op*

와 연관이 없다고 보는 것은 일종의 억지추론일 수 있다는 것이다.³⁸⁾ 이는 칸트가 초기 *Op*에서 물질의 응집력문제를 이미 자신의 초월적 관념론의 문제의식과의 연관성 속에서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 처음으로 ‘실체’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후 칸트가 계속해서 물질의 측량(Schätzung), 질량(Masse), 실체성(Substantialität)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그리고 낱장문서 27에 등장하는 ‘물질일반의 범주’(Kategorie der Materie überhaupt)에 관한 언급³⁹⁾이 등장한 이후 칸트가 물질에 분량개념을 어떻게 적용할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⁰⁾

낱장문서 29에 대한 이상의 해석에 근거해서 본다면, 아디케스에 의해 오로지 형이상학적 주제라는 이유만으로 *Op*에서 제외된 낱장문서 39/40의 내용 역시 순수한 형이상학 일반에 관한 탐구로만 이해될 수는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분량’(Größe)에 대한 해명들로 시작해서 범주일반에 관한 해명들로 확대되는 낱장문서 39/40은 외관상 순수하게 형이상학적인 범주들에 관한 서술로 보이지만, 이것은 물질이론에 대한 탐구로부터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문제라는 것이 투실링의 주장이다.⁴¹⁾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여기서 칸트의 논의는 *Op*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형이상학적 탐구가 아니라 그의 새로운 물질이론에 대한 탐구와 밀접한 내적 연관성 속에서 있는 것이고, 따라서 결코 제외될 수 없는 *Op*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38) Tuschling 1971, 19f. 참조.

39) AA XXI 445: “따라서 (물리적인) 물질일반의 범주들, 분량의, 성질의, 관계의(실체의), 그리고 양상의 [범주들](에피쿠르스적 원자의 비어있는, 가득 찬, 그리고 단적으로 압축할 수 없는 공간의)”

40) AA XXI 46,13-21; 447,6-9, 447,10-19, 447,20-22; 448,5-451.28 참조.

41) Tuschling 1971, 20쪽 참조.

Ⅲ. *Op*와 *KU*

1. 레만(Lehmann)의 가설

앞서 언급하였듯이 *Op*의 시발점(Ansatzpunkt)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칸트가 *Op*에 이르게 된 문제의식의 기원을 *KU*에서 찾았던 레만의 견해를 둘러싼 것이었다. 특별히 레만의 이러한 주장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학술원판 *Op*의 공동 편집자로서 *Op*의 원고들을 실제로 완전히 읽어 본 몇 안 되는 연구자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다.⁴²⁾ 학술원판 XXI권이 나온 1936년과 그 이듬해 레만은 *Op*와 관련하여 두 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⁴³⁾ 하지만 이들 논문에서의 밝힌 자신의 입장에 불만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레만은,⁴⁴⁾ 자신의 학위논문이기도 하였던 1939년 ‘Kants Nachlasswerk und die Kritik der Urteilskraft’에서 *Op*와 *KU*와의 관계문제에 대한 더욱 명확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유작의 이러한 문제발전(Problementwicklung)은, 전체 문제제기의

42) 베를린 학술원의 ‘칸트-위원회’(Kant-Kommission)가 칸트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칸트의 마지막 작품을 출판하기로 결정한 것은 Adickes의 연구가 나온 지 3년 후인 1923년이었다. 편집의 실제적인 최종권한을 Adickes에게 부여하려던 학술원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실제 편집은 Buchenau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는 칸트의 원고가 Berlin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당시 칸트의 원고에 대한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de Gruyter’ 출판사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유작 관련 원고들은 Berlin에 있었던 Buchenau에 의해 주도 되었고, 그는 당시 23살의 젊은 학자였던 Lehmann을 고용하여 칸트의 원고들을 직접 손으로 옮겨 쓰는 복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Lehmann은 Buchenau와 학술원판 *Op*의 공동편집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학술원판의 편집과정을 둘러싼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김재호 2006, 337-340쪽 참조)

43) 이 때 발표된 논문은, ‘Ganzheitsbegriff und Weltidee in Kants opus postumum’(In: Kant-Studien Bd. 41, 3-4, 1936, S.307-330)과 ‘Das philosophische Grundproblem in Kants Nachlaßwerk’(In: Blätter für Deutsche Philosophie, 11. Bd., Heft1, 1937, S. 57-70)이다.

44) Mathieu 1989, 239쪽 참조.

기원이 판단력비판과 관계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도 그렇다.”(Lehmann 1939, 11쪽)

여기서 우리는 레만이 *Op*에서 칸트의 문제제기의 기원을 *KU*에서 찾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Op*의 시발점을 판단력비판에서 찾는데 근거가 되었던 유작의 문제발전은 어떤 것들일까? 인용문의 앞 구절들에서 이를 레만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⁴⁵⁾

첫째, 90년대 말의 문서들에서는, 특별히 칸트 ‘문서번호’(Signatur)에 의한 ‘A. Elem. Syst.[Elementarsystem] 1-6’의 문서들에 이르면 유기체(organischer Körper)의 개념이 더 이상 뒤로 물러나 있지 않고 전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는 *KU*의 근본문제들이 이들 문서에서 다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⁴⁶⁾ 왜냐하면 유기체의 문제가 전면으로 등장함으로써 이들 문서들에서 처음으로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연역(transzendente Deduktion)이 ‘특수한 자연법칙’(Besondere Naturgesetze)⁴⁷⁾으로 확장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순수이성비판』에 따르면 범주들에 의해 완전하게 도출될 수 없었던 저 특수한 법칙들에 대하여, 만약 이들이 법칙이고자 한다면, 이 잡다함의 통일성의 원리가 필연적으로 간주되어야한다고 *KU*는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⁴⁸⁾

45) Lehmann 1939, 10-11쪽 참조.

46) 예컨대 합본 XII의 Bogen II에서는 유기체적인 자연물체와 비 유기체적 자연물체와의 구별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 Nähere Bestimmung des Begriffs von einem organischen Körper und der inneren Möglichkeit desselben. [...] ein organischer Körper ist der, an welchem die Idee des Ganzen vor der Möglichkeit seiner Theile in Ansehung ihrer vereinigt bewegenden Kräfte vorhergeht(causae efficientes)”(AA XXII 548)

47) B 165: “특수한 법칙들은 경험적으로 규정된 현상들에 관계하기에, 이 법칙들은 범주[순수 지성능력]로부터 완전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8) AA V 180: “[...], 이 법칙들은 비록 경험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지성통찰에 의하면 우연적일 수 있겠지만, 만약 이들이 법칙이라 일컬어져야 한다면(자연의 개념 역시 이를 요구하는 것처럼), 이들은, 비록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잡다함을 통일하는 하나의 원리로부터 나온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둘째, *Op*의 합본 X, XI을 이끌어 가고 있는 ‘새로운 연역’(Neue Deduktion)이라는 중심사상은 *KU*와 연관되어 있다. 물질의 운동하는 힘들을 그것들의 체계적인 결합 속에서, 그리고 스스로 현상에 속하는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도출하려는 연역, 또한 이 현상에 속하는 주체를 의식 속에서 확립하려는 연역, 즉 자기정립 이론(Selbstsetzung-Lehre)은 이미 *KU*의 두 개의 서문에서 제시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셋째, *KU*의 윤리신학(Ethikotheologie)은 *Op*의 이념이론(Ideelehre)의 더 광범위한 틀에서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Op*의 합본(Konvolut) I에 등장하는 세 가지 이념(Idee), 즉 신(Gott), 인간(Mensch), 세계(Welt)는 최고자(Maxima)로서 절대적 전체로서의 초월철학의 체계를 완성시키고 있다.⁴⁹⁾

이상의 근거를 들어 레만은 *Op*에 등장하는 ‘이행’(Übergang)이라는 학문의 제목, 즉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에서 물리학으로의 이행’은 *MAN*이라는 1786년 칸트의 저술만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KU*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행’(Übergang)이라는 개념을 환기시켜준다고 주장한다.⁵⁰⁾ 결국 그의 판단에 따르면, *Op*에서의 칸트의 계획은 “두 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즉 *KU*의 “이행문제”(Übergangsproblematik)와 *MAN*의 “적용문제”(Anwendungsproblematik)가 바로 그것이다.⁵¹⁾

2. 몇 가지 가능한 반론

이처럼 *Op*의 시발점을 *KU*에서 찾고자 하는 레만의 생각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먼저 그가 *Op*와 *KU*의 연관성의 근거로 언

49) AA XXI 95: “Transzendentale Philosophie ist die Idee eines Systems synthetischer Erkenntnis aus Begriffen a priori (im Gegensatz mit der Mathematik daher auch Newton philosophiae naturalis principia mathematica gleich anfangs aufstellt) in einem absoluten Ganzen. -Ideen können Beziehungen auf Dinge(Object) z. B. Gott, u. die Welt oder subjectiv auf das denkende Subject(z.B. das practische Freiheitsvermögen) gehen.”

50) Lehmann 1939, 11쪽.

51) 같은 곳.

급한 ‘이행’의 개념을 지적할 수 있다. 레만은 *Op*와 *KU*에 등장하는 ‘이행’의 유사성에 관해 두 가지 증거를 들고 있다. 첫째로는 이행을 필요로 하는 두 개의 상이한 영역 사이에 ‘갈라진 틈’(Kluft)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들 이행이 체계 내에서는 아무런 위치도 차지하지 않는다는 이행의 ‘고유성’(Eigentümlichkeit)이 이들의 유사성을 말해준다는 것이다.⁵²⁾

그러나 *Op*와 *KU*에 등장하는 이들 두 ‘이행’간에는 사실상 아무런 내용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KU*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연 인과성(Kausalität der Natur)의 지배 아래에 있는 ‘감성적인 것’(das Sinnlichen)으로부터 자유에 의한 인과성이 실현되는 ‘초감성적인 것’(das Übersinnlichen)으로의 이행이다.⁵³⁾ 반면에 *Op*에서 칸트가 언급하고 있는 이행은, *MAN*의 체계로부터 물리학으로의 이행이다.⁵⁴⁾ 따라서 전자의 이행이 *KU*에서 판단력(Urteilkraft)의 매개 작용을 통해 하나의 세계가 다른 세계로의 편입이 시도된다면, 후자의 이행은 *KU*에서는 시도된 적도 없고 문제가 된 적도 없었던 그 자체로 운동하는 힘으로서 세계를 채우고 있는 에테르(Äther)에 대한 선험적 연역을 통해서, 또한 경험의 절대적 통일성의 근거로서의 주체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52) 같은 곳.

53) AA V 175f: “그런데 감성적인 것으로서의 자연개념의 영역과 초감성적인 것으로서의 자유개념의 영역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갈라진 틈이 확고하게 있어서, 마치 서로 상이한 세계가 존재하여 한쪽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처럼, 전자로부터 후자로의(그러니까 이성의 이론적 사용을 매개로 하여) 이행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후자는 전자에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즉 자유개념은 자신의 법칙을 통해 부여된 목적을 감성세계에 실현되도록 해야만 한다. [...]”

54) AA XXI 360: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의 체계는 선험적 원리에 따라 경계 지워지는 자신의 특수한 영역을 갖는다.; 또 다른 영역은 물리학을 위해 경계 지워진 것이다. 이것은 자연과학(scientia naturalis)에 속하는 하나의 전체, 물리학이라고 불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두 영역 사이에는 이 두 영역이 하나로(자연철학 Philosophia naturalis) 함께 통일 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하나의 갈라진 틈이 존재한다. [...]”

레만 역시 이와 같은 이행의 내용적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그는 *Op*에 등장하는 이행의 요구는 *KU*에서는 낮은 것이고, 따라서 *Op*의 전체 문제제기의 기원이 *KU*와 관계 맺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이 ‘내용적 측면에서’(in materieller Hinsicht) 보자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⁵⁵⁾ 그럼에도 그는 *Op*의 이행이 *KU*의 이행에서 물려받은 이론적 ‘골격’(Gerüst)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주장이 ‘형식적인 측면에서’(in formaler Hinsicht) 옳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의 생각처럼 *Op*에서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로부터 물리학으로의 이행이, *KU*에서의 자연개념으로부터 자유개념으로의 이행과 ‘유비적으로’(analog) 기술된 것에 불가하다면, 따라서 *Op*와 *KU*간에는 단지 형식적인 유사성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Op*의 시발점(Ansatzpunkt)을 *KU*에서 찾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그 근거를 잃게 된다. *Op*의 시발점과 관련하여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것의 형식적 기원이 아니라, 내용과 관련된 그 문제의식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레만 주장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가 90년대 말의 문서에 등장하는 ‘유기체’(organscher Körper) 개념에 근거해서 *Op*의 시발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관해 무엇보다도 다음의 두 가지 점이 지적될 수 있겠다.

첫째, 그가 여기서 근거로 들고 있는 *Op*의 문서들은 모두 90년대 말에 등장하는 문서들이다. 즉 그는 ‘유기체’ 개념에 관한 논의가 나타나는 ‘A. Elem. Syst. 1-6’과 합본 V의 Bogen VIII-X, 그러니까 칸트 분류기호로는 ‘Übergang 9-11’을 그 예로 들고 있는데,⁵⁶⁾ 이들 문서들은 아디케스의 판단에 따르면 각각 1799년 2-5월, 같은 해 5-8월에 생성된 원고들이다. 이는 시기적으로 볼 때 모두 칸트의 *Op* 작업

55) Lehmann 1939, 11쪽.: “MAN에서 물리학으로의 이행이라는 이 새로운 학문의 제목은, 1786년의 작품만을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칸트가 판단력비판에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저 ‘이행’이라는 개념도 환기시키고 있다.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닐 수 있지만. [...] 유작의 이러한 생각은 판단력비판에게는 아직은 낯설다.”

56) Lehmann 1939, 10쪽.

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에서 *Op*의 시발점을 찾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이는 칸트가 *Op*의 초기부터 -늦어도 1796년부터- 중요하게 다루어 왔던 주제들의 문제의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Op*에서의 칸트의 문제의식을 축소하거나 왜곡한다는 점에서 아디케스가 합본 IV의 18개의 낱장문서들을 제외한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둘째, 적어도 ‘A. Elem. Syst. 1-6’ 이전까지 ‘유기체’ 개념은 결코 *Op*의 중심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Op*의 주된 주제였던 ‘*MAN*에서 물리학으로의 이행’에서 칸트의 관심은 ‘물질의 운동하는 힘들의 체계’(System der bewegenden Kräfte der Materie)였고 여기에서 ‘유기체적 현상’은 명백하게 제외된 채 논의되었다. 간단히 말해, 이때까지 *Op*에서 칸트의 관심은 물리학에 있었지 생물학에 있지 않았다. 그렇기에 1799년 중반 이후의 문서들에서 발견되는 칸트의 단호했던 생각의 변화 역시도 물리적 물체 일반의 가능성의 원리로 작용하기 위한 ‘운동하는 힘들의 기본체계’(Elementarsystem der bewegenden Kräfte)에 요구되는 ‘체계의 완전성’ 때문이지, 결코 ‘유기체’ 자체의 관심으로부터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⁵⁷⁾ 따라서 이들 문서에서 발견되

57) 칸트의 이러한 단호했던 생각에 변화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 작성연대가 1798년 10월-12월로 알려진 ‘Elem. Syst. 1-7’에서이다.: “전자의 [유기체적] 존재는 식물이든지 동물이다. 이들 양자는, 전자가 수용성의 법칙에 따르고, 후자가 자발성의 법칙에 따름으로 자신의 특성을 갖게 되는 힘들의 체계이다.”(AA XXII 179)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힘들의 체계’(System der Kräfte)로서의 물리적 물체 개념이 근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칸트가 여기서 유기체와 관련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유기체 역시도 이러한 물리적 물체의 가능성의 원리로서의 운동하는 힘들의 기본체계로부터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A. Elem. Syst. 1’에서 칸트가 유기체의 문제를 ‘물질의 운동하는 힘들의 체계에 관하여’(Vom System der bewegenden Kräfte der Materie) 라는 전체 제목하에 다루고 있으며, 레만이 예로 들었던 유기체적 자연과 물리적 자연의 개념을 구분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III장의 제목 역시 “힘들의 체계일반의 분류의 완전성에 따라서(Der Vollständigkeit der Einteilung des Kräfte Systems überhaupt nach)”이다. 특별히 칸트가 이러한 생각의 변화에 이르게 된 이유에 관해서는 Tuschling 1971, 164이하를 참조할 것.

는 이러한 관심의 변화는 *Op*에서 그의 문제의식의 수정, 혹은 변경은 될 수 있지만 결코 시발점은 될 수 없는 것이다.⁵⁸⁾

IV. 마치는 말: *Op* 해석의 바람직한 방향을 재고하며

앞서 살펴본 합본 IV의 23개 낱장문서 편집문제는 *Op*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아디케스의 판단과 달리 낱장문서 25를 *Op*의 최초의 문서로 간주한다면, 칸트가 *Op*에 이르게 된 문제의식의 기원은 *MAN*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과, 또한 칸트가 합본 IV의 초기 낱장문서들에서 다루고 있는 새로운 물질이론은 *Op*가 단순히 *MAN*의 확장이나 변경이 아닌 *MAN*에 대한 자기 비판의 길로 향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식이라는 것, 나아가 낱장문서 29와 39/40에 담겨져 있는 형이상학적 주제들은 *Op*에서 칸트의 문제의식이 자신의 초월철학 전체 체계의 문제와 처음부터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결과적으로 *Op*의 문제의식과 그것의 진행방향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 지나친 해석이며 또 다른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Op*는 결코 체계적인 사유가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는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낱장문서 25를 최초의 문서로 인정한다면, *Op*라는 이름이 붙여진 칸트의 미완성 원고들은 적어도 15년에 걸쳐 작성되었다.⁵⁹⁾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58) *KU*에서 *Op*의 시발점을 찾는 레만의 주장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은 Mathieu의 연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Mathieu 1989, 42-45; 237-246 참조).

59) 낱장문서 25는 1786년 12월 2일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Op*의 마지막 원고에 해당하는 합본 I의 작성 년도는 1800년에서 1801년으로 알려져 있다. 설사 Adickes의 판단을 받아들여 합본 IV의 5개의 문서와 '8절지 초안'(Oktaventwurf)으로부터 계산한다고 해도 5, 6년이 넘는 기간이다.

수 있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칸트사유의 반성과정이지 체계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내용적 통일성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Op*에서 굳이 통일성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반성의 연속성을 통해 구성되어지는 동적인(dynamisch) 통일성이자 정적으로 고정된(statisch) 통일성은 아니다.⁶⁰⁾

이러한 정황을 무시하고 *Op*를 하나의 체계적 입장에 경도되어 해석하는 것은, *Op*에 등장하는 몇몇 구절과 몇몇 단어들을 그들의 문맥과 상관없이 떼어내어 자신의 입장에서 인용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일 것이다.⁶¹⁾ 이런 이유에서 투실링은 *Op*를 해석하는 원칙으로 ‘역사적 해석’(Historische Interpretation)을 제안한 바 있다.⁶²⁾ 그에 따르면 역사적 해석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記述)하는 방식’(beschreibend, deskriptiv)이어야 한다. 즉, 칸트의 사유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쫓기 위해 모든 반성들의 결과지에 이르기까지 텍스트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Op*의 중간에서부터 시작할 수 없고, 가장 오래된 문서들로부터 가장 나중 문서들의 순서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역사적 해석의 두 번째 의미는, 칸트 사유의 과정을 뒤 쫓아 얻어진 결과들을 칸트의 이전 비판기 작품들과 그 작품들이 서 있었던 역사적 문제 상황과 연결시켜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 우리는 칸트 사유의 전체발전 과정을 그릴 수 있고,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논의한 *Op*의 시발점 문제는 향후 *Op* 연구에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합본 IV의 초기 낱장 문서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MAN*으로부터 시작된 칸트의 문제의식을 쫓기 위해서는 이후 문서들에 대한 철저한 고찰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또한 레만의 경우는 *Op*의 중심 테마를 서둘러 판단하고 이로부터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갖는 위험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Op*가 가진 형식적 난삽함과 그 내용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0) Tuschling 1971, 11쪽.

61) 이러한 해석의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Tuschling의 같은 책 12-13쪽 참조.

62) Tuschling 1971, 13쪽.

칸트가 생애 마지막까지 고민한 진정한 반성의 내용을 찾고자 하는 오늘날의 모든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투 고 일: 2010. 08. 02.
심사완료일: 2010. 08. 10.
게재확정일: 2010. 08. 11.

김재호
서울대학교

참고문헌

김재호, 「칸트 『유작』 (Opus postumum)에 대한 이해와 오해 -칸트의 마지막 작품을 위한 예비 작업들의 편집 역사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2006.

(일차문헌)

Kants gesammelte Schriften, herausgegeben von der Königlich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Bd. I-XXII, Berlin 1910ff. (Bd. XXIII hrsg. von der Deut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Berlin 1956; ab Bd. XXIV hrsg. von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in Göttingen, Berlin 1966ff.)

Opus postumum, trans. by. Förster and Michael Rosen; ed. by E. Förster, Cambridge 1993.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Naturwissenschaft, Mit Einleitung hrsg. von Pollok, Hamburg 1997.

Kritik der reinen Vernunft(1781, 1787), hrsg. von Raymund Schmidt, Hamburg, 1971(1930).

(이차문헌)

Adickes, E., *Kants Opus postumum dargestellt und beurteilt*, Berlin 1920.

Ders., *Kant als Naturforscher* Bd. II Berlin 1925.

Brandt, R., ‘Kants Vorarbeiten zum Übergang von der Metaphysik der Natur zur Physik’ In: *Von Übergang-Untersuchungen zum Spätwerk Immanuel Kants*, 1991

Hoppe, H., *Kants Theory der Physik; Eine Untersuchung über das Opus postumum von Kant*, Frankfurt am Main, 1969.

Lehmann, G., *Kants Nachlasswerk und die Kritik der Urteilskraft*,

1939.

Ders, *Beiträge zur Geschichte und Interpretation der Philosophie Kants*, Berlin, 1969.

Mathieu, V., *Kants Opus postumum*, Frankfurt am Main, 1989.

Plaass, P., *Kants Theory der Naturwissenschaft*, Göttingen, 1965.

Pollok, K.,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Naturwissenschaft; ein kritischer Kommentar*, Hamburg 2001.

Schäfer, L., *Kants Metaphysik der Natur*, Berlin, 1966.

Tuschling, B., *Metaphysische und transzendente Dynamik in Kants Opus postumum*, Berlin/New York, 1971.

Wasianski, *Immanuel Kant in seinem letzten Lebensjahren*, Darmstadt 1993.

ABSTRACT

The ‘Starting-point’ in Kant’s Opus postumum
—About 23 of the Early Leaves of the IVth Fascicle—

Kim, Jae-Ho

In 1790, in the preface to his *Critique of Judgement*, Kant had written: “With this then, I bring my entire critical undertaking to a close.” Yet, later, Kant mentioned ‘a gap in the critical philosophy’, which now stands open will be filled. Why has Kant, then, tried to reconstruct his system of critical philosophy? Why has Kant decided to engage in another major work, especially the ‘Transition-Project’ in his opus postumum? In other words, where is the opus postumum located in the context of Kant's other writings? The issue of the ‘starting-point’ in Kant's opus postumum is concerned with these questions. However, this issue of the ‘starting-point’ in Kant's opus postumum was already applied to the history of editions of Kant's original manuscripts. A typical example is the early 23 leaves of the IVth fascicle.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investigate the problem of Adickes' research, which excluded 18 leaves of the IVth fascicle from "Vorarbeiten" to the opus postumum, and from this I tried to infer the 'starting-point' of the opus postumum. Besides, I have tried to discuss Lehmann's opinion, according to which the origin of Kant's plan for a 'Transition' in the opus postumum is not from *Metaphysical Foundations of Natural Science*, but from *Critique of Judgement*; and finally, on the basis of these discussions, I have tried to

present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Kant's opus postumum.

Keywords: Kant, Kant's Opus postumum, Starting-point in Kant's Opus postumum, The IVth Fascicle, The early Leaves, Critique of Judgment, Metaphysical Foundations of Sciences.